

## 외국인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최병두\*\* · 송주연\*\*\*

**요약:**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 및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 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초국적 이주자, 국제이주의 미시적 배경, 국제이주의 의사결정과정

### 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에 따른 지구화과정이 지속되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간적 압축이 심화되면서, 임금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간을 이동하는 초국적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자 역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최근 백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유형도 주류를 이

루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외에도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이주와 정착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등의 용어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공간적 함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문화(또는 혼종적) 공간’, ‘초국적(또는 범세계적) 도시’ 등의 용어도 제안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bdchoi@daegu.ac.kr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urbangeo@daegu.ac.kr

이러한 초국적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에 유입된 이주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두었으며, 이들의 이주 배경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에 관한 일부 연구들도 대부분 초국적 이주의 원인을 송출국과 유입국의 구조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라고 할지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이상, 실제 이주 행위를 실천하는 이주자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수반한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세계경제 재편이나 사회문화 변화 등 거시적 배경에 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여러 가지 미시적 환경들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이주 전 삶의 개인적·가족적 여건, 이주국가에 대한 이주자 개인의 선호도나 이미지 등은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이주가 일어나기 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미시적 이주배경을 고찰하고, 이주를 결정짓는데 고려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주 전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둘째, 이들이 지니고 있던 한국에 관한 인식과 이미지를 분석할 것이며, 셋째, 이러한 미시적 환경들을 토대로 한국 이주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한 이주의 용이성, 취업환경, 목적 성취 가능성에 관한 인식 등을 고찰하고 또한 이주 의사결정과정에 작용하는 간섭기회로서 타인의 영향과 다른 국가의 방문 경험 및 해외이주 가족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기본적인 문헌조사와 더불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의 6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 부수는 모두 1,387부이다. 이 중 유의하다고 판단되어 설문분석에 사용한 부수는 유형별로 결혼이주자 393부, 이주노동자 346부, 전문직 이주자 256부, 외국인 유학생 358부로 모두 1,353부이다. 설문조사 후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질문지를 활용해 추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2. 미시적 이주연구의 동향과 개념적 분석틀

### 1) 미시적 이주연구의 동향

국제 이주를 실행한 이주자들은 세계적인 상황과 국가 간의 상황 등과 관련된 구조적 배경 하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 이주를 설명하는 이주이론들은 개인의 결정과정을 배제한 채 주로 세계체제론적 시각이나 국가 간 임금격차, 이주노동시장, 본국의 배출요인(인구 과밀, 경지 부족, 성차별 등) 및 목적국의 흡입요인(인구 감소, 경작 인구 부족, 가사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이주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중심적 접근은 초국적 이주를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이나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의 노동을 동원하는 방식을 강조한다(전형권, 2008, 270).

그러나 다른 한편 이주이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온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오래 전부터 국가 간 임금격차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행위자에 초점을 둔 미시적 측면을 고려한 바 있다(Massey *et al.*, 1993). 여기서 미시적 분석은 이주자들을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이주 가능한 국가나 지역을 비용-이익의 합리적 계산 결과에 근거하여 비교·선

정한 후 이주한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 접근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이론에 의하면(Stalker P., 2004; 김희재, 2002), 이주자들은 자신의 인적자본(교육, 경험, 훈련, 언어능력 등)을 투자하여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비용은 이주에 들어가는 현금 비용뿐만 아니라 정든 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심리 등 비현금 비용도 포함하고, 순이익은 두 지역 간 기대소득의 차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이주의 비용을 뺀 나머지로 계산된다(석현호, 2000).

또한 이러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을 발전시킨 ‘신이주경제학’의 관점은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지 미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한다(Lauby and Stark, 1988; Taylor, 1986). 이 이론에 의하면, 신중한 금융투자자가 여러 곳에 지분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가족 내에서도 위기 분산 전략으로 가족 중 한두 사람을 해외로 보낸다는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시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불안정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주를 통해 가족 내에서 상호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국제이주는 개인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위기 분산 전략으로 파악된다(전형권, 2008, 268).

이러한 전통적 구조중심이론이나 행위자중심이론은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 즉 행위 또는 구조 가운데 한 차원에만 관심을 둬으로써 이들간 상호관계에 따른 국제이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박배균, 2009). 이에 따라 보다 최근에는 ‘구조’적인 제약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개인의 ‘차별화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에이전시’(agency)의 개념이 강조되기도 한다. 정현주(2009)는 경제주의 시장관점의 이주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보다 미시적 스케일에서 이주자의 에이전시와 그들 안에서의 차별성

에 주목하려는 최근의 이주 연구경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과 갈등을 짚어내고 있다(Constable, 2005).

한편 국내에서는 이주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측면의 이주연구들은 그 주제가 다양화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인구학적 이동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한적이거나 본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미시 이주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주 전 본국에서 영위했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연구는 보고서 형태의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석현호·이혜경(2003)의 연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주자의 인종 집단별로 이주 전 교육수준과 직업, 국제 이주의 동기 등 이주 전 삶의 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이주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미시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논의된 바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거나 이주의사결정에서 작용하는 간접기회로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정도이다(김민정 외, 2006; 김동수 외, 2008; 박경태, 2001). 한편 양소예(2007)와 한주희(2007)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전문직이주자를 대상으로 이주시 고려되었던 개인적인 조건 및 한국과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박은경(2008)의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에 거시적 요인 보다 미시적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미시적 이주배경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 이주연구들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제가 다양화되지 못했고, 동시에 단편적 시각으로 파악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

주 전 한국에 관한 인식과 이미지도 국제이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초국적 이주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주연구라 할지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초국적 이주의 맥락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에 관한 분석은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의 상호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외적 조건으로서 거시적 배경을 전제로 작동하는 미시적 환경의 조건들과 이에 따른 이주자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개념적 분석틀

초국적인 이주의 흐름은 이주자 개인의 미시적인 이주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세계적 경제정치 환경과 출신국 및 목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아래 일어난다. 먼저 지구적 수준에서 세계적 환경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 속에서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이 축

진되고, 국가 및 지역 간 발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상품과 물자의 교역을 넘어서 인력까지도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이동성의 증대와 접근성의 향상은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구적 수준에서의 변화들은 다시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각각의 국가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상이한 환경이 형성된다. 예컨대 경제발전의 수준과 고용구조, 정치적인 상황, 사회복지의 수준, 물질문화의 수준이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형성되며, 이에 따라 국가들의 중심부/주변부적 지위가 결정되면서 각 국가의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좌우하게 된다.

이주자들의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은 이러한 세계적·국가적 환경이라는 거시적인 배경 하에 일어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이주자 개인과 직결된 미시적 환경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출신국의 사회·경제적인 환경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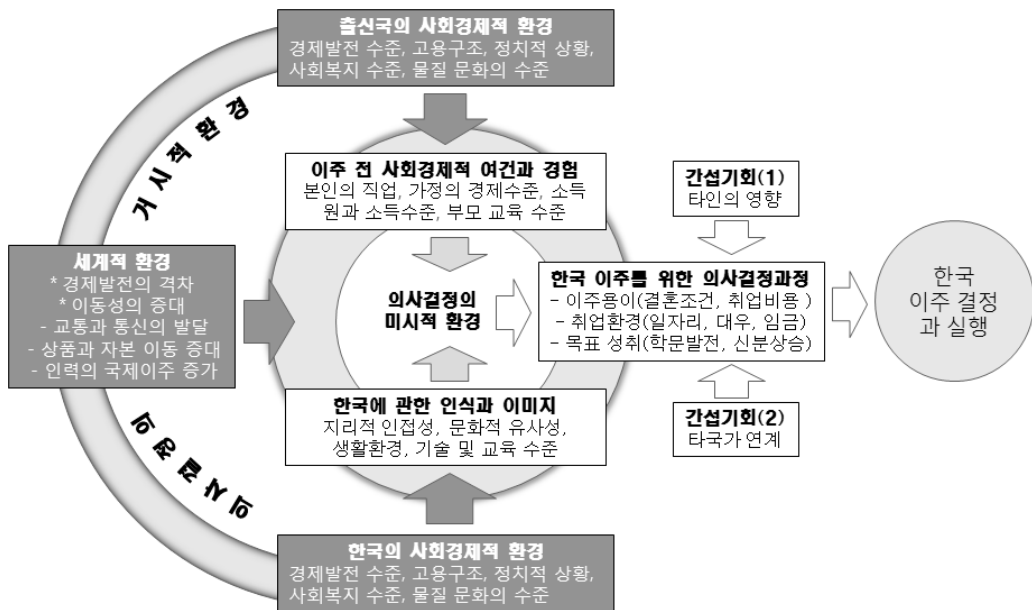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에 이주자들은 각자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개인적 역사(생애사)와 지리(사적 지리)와 관련하여 저마다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경험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이들은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목적국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출신국에서의 경험과 목적국에 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주자들은 이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이주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때로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제 2의 대안적 국가를 고려하기도 하는 등 간섭기회가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주자들은 목적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실제 이주를 실행하여 목적국의 특정 지역에 정착, 생활해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 현상의 배경과 이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거시적·미시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이주의 미시적인 배경들에 초점을 두고,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이주자들이 국제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이주 전 개인 및 가족의 여건

이주자가 이주를 결정하기 전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개인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은 이주의 원인 또는 동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의 경우,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처한 빈곤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본국 가족의 생계부담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국가에서 소득이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송금하기 위하여 국제이주를 결행하게 된다. 이들과는 달리 전

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개인적 학력이나 직업 또는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들 역시 좀 더 높은 임금이나 취업기회 또는 본국에서는 얻기 어려운 경력 쌓기나 기술 또는 지식 습득을 위하여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어떠한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이주자들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 예로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또한 이주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적 능력, 즉 인적 자본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전 직업은 본국에서 이들의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주한 후 이들의 취업이나 경력의 경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전문직 이주자를 대상(이주 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형을 제외함)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이들의 이주 전 직업을 확인해 보면 <표 1>과 같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이주 전 직업은 단순생산직(20.6%), 무직(14.7%), 농어업(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자들 가운데 취업을 했던 이주자들은 대체로 도시 단순 노동력의 저임금직 내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분야에 종사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이주 전 직업이 농어업 및 단순생산직이 각각 21.2%, 19.8%로 높게 나타나서 결혼이주자와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와는 대조적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 전 직업은 교육·연구개발분야가 28.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학생이었다는 응답(20.9%)도 높게 나타나 현재 한국에 있는 전문직 이주자들 중 한국에서 자신의 첫 경력을 쌓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력 경로는 대체로 본국에서의 직종과 연관되어 있다. 예로,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은 이주 전 판매·유통분야(47.2%) 및 경

표 1.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전 직업

(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단위: 명, %)

구분	합계	농어업	단순 생산	단순 사무	전문직	판매· 유통	연예· 스포츠	공무원	학생	무직	기타
결혼이주자	389	13.4	20.6	8.7	6.4	9.5	9.3	0.5	10.0	14.7	6.9
이주노동자	339	21.2	19.8	7.7	5.3	8.0	5.0	1.8	7.7	10.9	12.7

(나) 전문직 이주자

(단위: 명, %)

구분	합계	농어업	단순 생산	단순 사무	전문직				판매· 유통	연예· 스포츠	공무원	학생	무직	기타
					의사, 변호사	경영· 회계	교육, R&D	정보통 신기술						
전문직이주자	253	0.8	1.2	19.4	1.2	9.9	28.1	4.7	2.8	4.0	0.4	20.9	1.6	5.1
기업활동	36	0.0	5.6	30.6	0.0	47.2	0.0	2.8	2.8	2.8	0.0	5.6	0.0	2.8
연구·기술	85	1.2	0.0	24.7	2.4	4.7	31.8	11.8	1.2	2.4	1.2	17.6	1.2	0.0
외국어강사	109	0.9	0.9	11.9	0.9	3.7	36.7	0.9	4.6	0.0	0.0	30.3	1.8	7.3
연예 관련	9	0.0	0.0	11.1	0.0	0.0	0.0	0.0	0.0	77.8	0.0	0.0	0.0	11.1
기타	14	0.0	0.0	21.4	0.0	0.0	28.6	0.0	0.0	0.0	0.0	21.4	7.1	21.4

주: 기업활동 = 상사주제(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특정활동(E-7); 연구·기술 =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외국어 강사 = 회화지도(E-2); 연예 관련 = 예술홍행(E-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영·회계분야(30.6%)에 종사하였고,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과 외국어 강사는 이주 전 교육·연구개발 분야(각각 31.8%, 36.7%)에, 그리고 연예관련 전문직은 연예·스포츠직(77.8%)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과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단순사무직에 종사했다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주 전 실제 비전문직 분야에 종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우수 연구기술 전문직 이주자의 유치 정책과는 어긋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어 강사들이 이주하기 전 대부분 학생이었다는 설문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직 이주자들의 이주 전 연평균 소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들은 다른 이

주자들에 비해 전문직이라는 특성상 본국에서 취업의 기회가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고소득에 종사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분석결과 전문직 이주자의 연평균 소득은 대체로 1,000~3,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전반적으로 본국에서 고임금을 받는 고급인력에 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경제의 창조적 원동력이 되는 고급인력의 유치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대개 이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오히려 더 나은 경력을 쌓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sup>. 이러한 점은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예로 2003년 한국으로 이주한 한 외국어 강사는 심층면담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의 상황과 한국으로 이주한 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례 1] 나는 캐나다 출신이며, 2003년 여름 한국에 오기 전, 토론토의 한 회사에서 주당 50시간을 일했으며, 휴가는 거의 없었다. 나는 변화를 모색했다. 여행을 원했고, 학생 시절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또한 나는 나의 이력을 정말 바꾸고 싶었다. 한국 구미시의 한 영어학원에서 일했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한국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일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보기로 생각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한 후, 나는 대전에 있는 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준 소개업자와 접촉을 했다. 일년 동안 어린이를 가르친 후, 나는 내가 진실로 한국을 좋아하며,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성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의 한 한국직업계시판을 통해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캐나다 출신 36세 남성, 2003년 입국, 현재 대구 소재 모 대학교 외국인 강사).

이와 같이 심층면접 응답자는 선진국인 캐나다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본국 상황에 비해 한국 상황이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에서의 직업을 선택하여 이주하였고, 이주 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직장을 옮기면서 거주지도 함께 옮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주로 저개발국에서 이주해오는 연에 관련 전문직은 본국에서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비록 전문직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이주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장미진 외, 2002).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전 직업과 더불어 이들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국제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본국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50.6%가 본국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운데 ‘풍족하다’는 인식(32.5%)이 ‘빈곤하다’는 인식(27.0%)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표 2).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저개발국 출신이 많은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의 영향과 이와 상반되는 선진국 출신의 전문직 이주자 및 다소 가정환경이 풍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의 네 유형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생존회로(survival circuit)에서 이주하는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 집단과 상층회로(upper circuit)에서 이동하는 전문직 이주자 및 외국인 유학생으로 분화되는 패턴을 보인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본국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알려진 결혼이주자는 실제 설문조사 결과 52.7%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풍족함과 빈곤함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건복지부(2005)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물론

표 2. 이주 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단위: 명, %)

이주자 유형	합계	아주 빈곤함	다소 빈곤함	그저 그렇함	다소 풍족함	아주 풍족함	5점 척도
전체	1,341	2.8	14.2	50.6	20.0	12.5	3.25
결혼이주자	391	3.8	21.2	52.7	11.8	10.5	3.04
이주노동자	342	5.6	25.1	53.5	11.4	4.4	2.84
전문직 이주자	254	0.4	4.7	56.7	32.7	5.5	3.38
외국인 유학생	354	0.6	2.5	41.2	28.2	27.4	3.79

주: 아주 빈곤=1점, 다소 빈곤=2점, 그저그렇함=3점, 다소 풍족=4점, 아주 풍족=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 여성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여성들의 이동이며, 국제결혼을 해서 온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온 여성들 중 이미 자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확립했던 여성들이 많고,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생각하지도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주의 목적이 취업과 직결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자보다 경제적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저 그러함'을 제외한 약 30%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빈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는 인식과 설문조사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이주 목적 중 경제적 요인은 매우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전문직 이주자는 설문의 특성상 '그저 그러함(56.7%)'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하면 빈곤한 가정(5.1%)보다 풍족한 가정(38.2%)의 수치가 대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배경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구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특히 비자유형별로는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무역경영(D-9)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60.0%), 다음으로 전문직업(E-5)의 경제적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59.3%). 반면 다른 비자유형에 비해 소득의 수준이 다소 낮거나 저개발 출신국이 많은 예술홍행(E-6)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수준이 그저 그러하거나(77.8%) 다소 빈곤(22.2%)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은 전문직 이주자보다도 더 대체로 풍족한 경향을 보인다. '다소 풍족함'과 '아주 풍족함'의 비율이 전체 197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응답자 중 55.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은 아직까지 자비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유학을 갈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이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전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

련하여 이들이 본국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국 가족의 주 소득원이 누구이며, 주 소득원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국 가족의 주 소득원은 아버지인 경우가 대체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그 비율이 77.0%를 차지하여 전체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하는 유형들(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가운데, 결혼이주자는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주 전 본인의 취업 비율이 13.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 가정의 주 소득원이 어떠한 업종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생존회로에서 이동하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가정은 주로 농어업 및 단순생산직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결혼이주자들은 본국에서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지만, 이들과 결혼하는 배우자 역시 대부분 한국 여성과 결혼이 어려운 도시나 농촌의 중하층에 속하기 때문에, 본국의 가정 생활에 비해 소득의 절대액은 다소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초국적 이주에서 상층회로를 구성하는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가정은 앞의 유형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직 이주자의 가정은 교육·연구개발직(19.8%), 단순사무직(19.3%), 전문직(18.9%) 등에 의해서, 외국인 유학생의 가정은 경영직(30.5%)에 의해서 주로 생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하기 전 영위했던 이러한 가정의 경제수준과 주 소득원 및 종사 업종은 부모의 교육수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의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 정도는 가정환경의 차이를 낳게 되



표 3.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교육수준(상위 5개국별)

(단위: 명, %)

결혼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국적	합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국적	합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체	382	26	85	127	109	31	4	전체	355	3	8	18	134	163	29
구성비(%)	100	6.8	22.3	33.2	28.5	8.1	1.0	구성비(%)	100	0.8	2.3	5.1	37.7	45.9	8.2
중국	139	4.3	12.9	40.3	38.8	3.6	0.0	중국	206	0.0	1.0	4.9	42.7	50.5	1.0
베트남	128	11.7	28.1	43.8	14.1	2.3	0.0	일본	31	0.0	0.0	6.5	32.3	54.8	6.5
필리핀	56	7.1	21.4	10.7	32.1	21.4	7.1	인도	23	0.0	0.0	0.0	56.5	34.8	8.7
캄보디아	18	0.0	44.4	16.7	22.2	16.7	0.0	필리핀	16	12.5	6.3	6.3	18.8	31.3	25.0
일본	16	6.3	25.0	6.3	56.3	6.3	0.0	미국	9	0.0	0.0	0.0	44.4	44.4	11.1
기타	25	0.0	28.0	20.0	24.0	28.0	0.0	기타	70	1.4	7.1	7.1	22.9	35.7	25.7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며, 이에 따라 이주자들의 이주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표 3>와 같이 응답자의 상위 5개 국적별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sup>3)</sup> 이 두가지 유형, 즉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교육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자 부모의 학력은 중학교(33.2%), 고등학교(28.5%), 초등학교(22.3%), 대학교(8.1%)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이주자의 가정은 저학력의 농어업 생계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려는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학교(45.9%), 고등학교(37.7%), 대학원(8.2%), 중학교(5.1%), 초등학교(2.3%), 무학(0.8%)의 순으로 결혼이주자와 달리 대체로 고학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보자면<sup>4)</sup>,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기에 발생했던 국외 유

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을 위주로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경제적·문화적 계층상승을 피하기 위해 더 발전된 국가로 유학이 일어났다. 특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적이 동일한 중국, 필리핀, 일본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는 결혼 이주를,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요컨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이주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 4. 한국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이미지

이주자 개인 및 가정의 이주 전 사회·경제적 여건은 출신국의 상황에 따른 미시적 환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주자들은 이주 가능대상 목적국가에 관한 인식과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 이 때 목적국에 대한 이미지는 일관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인지되며, 여러 하위 이미지들로 구성된 종합적이고 누적적인 심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가지는 목적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생활환경, 기술 및 교육수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리적 인접성

외국인 이주자들이 느끼는 목적국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의 정도는 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지리적 인접성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출신국과 목적국 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인지되는 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느끼는 지리적 인접성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은 이주자의 공간에 대한 극복 정도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경력을 중심으로 주로 이동하는 전문직 이주자를 제외한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세 유형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 값이 결혼이주자 3.22, 이주노동자 3.62, 외국인 유학생 3.28로 나타나 이주노동자의 공간 극복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지리적 인접성은 출신국에서 목적국인 한국까지의 물리적 및 심리적 거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는 점에서 각 유형의 이주자들을 출신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을 대체로 물리적인 거리와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을 지리적으로 인접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는데(2.99), 실제로 이들은 국내의 결혼이주자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을 지리적으로 멀게 인식하면서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네트워크가 이주 가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이주의 성격이 노동을 위한 것이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국적이라 할지라도 결혼이주자에 비해 심리적으로 한국을 더 가깝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같은 국적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이주자들에서 5점 척도값을 비교해 보면, 결혼이주자 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지리적으로 더 인접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자와 같이 한국 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 연결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점 척도값으로 보면,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3.27)들은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2.94) 보다 한국을

표 4. 유형별 출신국별 지리적 인접성에 관한 인식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 척도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 척도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 척도
결혼이주자	전체	373	3.22	이주노동자	전체	337	3.62	외국인유학생	전체	358	3.28
	중국	141	3.46		중국	117	3.97		중국	209	3.54
	베트남	120	2.99		필리핀	61	3.72		일본	31	3.65
	필리핀	54	3.19		인도네시아	33	2.94		인도	23	3.17
	일본	15	3.40		베트남	62	3.39		필리핀	16	3.06
	캄보디아	18	3.06		스리랑카	22	3.27		미국	9	1.78
	기타	25	3.00		기타	42	3.60		기타	70	2.63

주: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더 가깝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인접성에 관한 인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 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결혼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을 물리적 거리와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학생들의 경우 5점 척도값이 1.7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과 일본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 2) 양국 간 문화적 유사성

이주 국가에 대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유사성의 정도는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카(Carr, 2005)는 문화적 요인 가운데 출신국의 문화적 해체가 미국문화의 세계화와 맞물려 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전통적으로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가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류영향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 전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하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의 위험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유사성은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두 유형을 대상으로 이주 전 한국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유사성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이주 후 한국 문화와 가장 크게 접촉하게 될 결혼이주자들(3.31)이 이주노동자(3.47)에 비해 문화적인 거리감을 다소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지 정도는 물론 설문조사의 시점이 이주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가정 내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거리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자들이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보다 오히려 이주 전 한국에 대해 문화적 유사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빈도가 높고,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반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동아시아권의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5점 척도 값이 각각 2.60과 3.13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적인 유사성을 가

표 5. 유형별 출신국별 문화적 유사성에 관한 인식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척도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척도
결혼 이주자	전체	375	3.31	이주 노동자	전체	342	3.47
	중국	141	3.13		중국	117	3.94
	베트남	122	3.63		필리핀	63	3.23
	필리핀	54	3.09		인도네시아	35	2.88
	일본	15	2.60		베트남	62	3.51
	캄보디아	18	3.50		스리랑카	22	2.77
	기타	25	3.32		기타	43	3.33

주: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지지는 않는다. 문화적인 요인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결혼이주자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에서 이주해 온 한 결혼이주자도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사례 1]** 처음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 간의 갈등도 많았고 힘들었다. 그저 언어만 통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국 가정의 집안 법도와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가족과 친척 간의 유대관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의 지켜야 되는 예절과 행동과 말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 혹,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을 때면 혼자 울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하루에 거짓말 조금 보태어 수십 번이 더 들었다 (중국 김길성 출신 재중동포, 여, 1997년 이주, 대구 거주).

그러나 결혼이주자와는 달리,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문화적 유사성에 대해 5점 척도 값이 3.94로 나타나 결혼이주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계 중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특히 이들은 언어 장벽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많이 느낀다고 하겠다. 언어는 문화적인 친밀성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변수로, 이주자들은 자신이 잘 구사할 수 있는 언어권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베트남(3.51), 필리핀(3.23), 인도네시아(2.88), 스리랑카(2.77)의 순으로 나타나 문화적 유사성을 느끼는 정도는 단순히 지리적인 인접성을 떠나서 본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정도는 동일 민족의 여부와 더불어 본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빈도, 그리고 한류 등의 영향에 따른 문화적 접촉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 3) 생활환경

이주 전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고 있던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 역시 이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미시적 환경을 구성한다. 홀(Hall, 1986)은 국가 이미지를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는 인지적 묘사” 또는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주 전 인식하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한국에 대한 생활환경에 대해 5점 척도 값이 3.64(이주노동자)와 3.59(외국인 유학생)로 나타나 다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한국의 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정도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필리핀(3.87), 중국(3.75) 출신의 이주자들이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소 좋게 인식하고 있으며, 베트남(3.45)과 인도네시아(3.40), 스리랑카(3.36) 출신의 이주자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신국의 발전 수준 정도가 한국에 대한 생활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생활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인도네시아인 20.0%, 베트남인이 14.5%로 타 국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인도 출신의 학생이 5점 척도 값에서 4.13을 나타내어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필리핀 3.56, 중국 3.50, 미국 3.44, 일본 3.35의 순을 보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출신국의 발전 수준이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 전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주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

표 6. 유형별 출신국별 한국의 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척도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척도
이주 노동자	전체	342	3.64	외국인 유학생	전체	357	3.59
	중국	117	3.75		중국	208	3.50
	필리핀	63	3.87		일본	31	3.35
	인도네시아	35	3.40		인도	23	4.13
	베트남	62	3.45		필리핀	16	3.56
	스리랑카	22	3.36		미국	9	3.44
	기타	43	3.58		기타	70	3.83

주: 아주좋지않다=1점, 별로좋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좋다=4점, 매우좋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우, 학업을 마친 후 귀국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향후 이들의 직장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 관한 이미지를 분석한 최진희(2006)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닌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앞으로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방문을 권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기술 및 교육수준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이주 전 한국의 기술수준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업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역시 한국의 교육 수준 또는 개인의 전공 관련 수준에 대한 인식이 이주 의사결정과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 전 한국의 기술수준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주 전 한국의 교육 및 전공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

해 5점 척도 값으로 3.89 정도로 높게 인식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3.26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주노동자의 경우 특히 필리핀 출신의 이주자들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4.28), 중국인들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3.94).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주노동자의 출신국이 주로 저개발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시적인 흡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인들은 한국의 기술수준 정도를 다소 우수한 편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3.44). 이는 인도네시아 인들이 한국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타 국가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이 인식하는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3.26)에서, 한국은 유학 이주를 결정할 정도의 교육적 위상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인도인들이 한국의 교육 수준에 대해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3.70), 미국인들은 자국의 교육적 위상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의 교육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된다(2.22). 따라서 교육 선진국에서 이주해 온 유학생들은 한국의 교육 이

표 7. 유형별 국적별 한국의 기술 또는 교육 수준에 관한 인식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척도	유형	국적	응답자(명)	5점척도
이주 노동자	전체	338	3.89	외국인 유학생	전체	357	3.26
	중국	117	3.94		중국	208	3.16
	필리핀	61	4.28		일본	31	3.06
	인도네시아	34	3.44		인도	23	3.70
	베트남	62	3.79		필리핀	16	3.25
	스리랑카	22	3.82		미국	9	2.22
	기타	42	3.71		기타	70	3.66

주: 이주노동자에게는 '기술수준'을, 외국인유학생에게는 '교육수준'을 문항으로 제시함.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미지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이주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목적은 학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이 한국에서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평가하는 한국의 전공학문 수준은 3.38로, 교육수준 일반에 대한 평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을 하기에는 한국의 교육 및 전공학문의 발달 수준은 높지 않으며, 대신 한국과 관련된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따라서 한국의 여러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학비 지원이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 것 보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한국 이주를 위한 의사결정과정

앞에서 살펴본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환경 속에서 이주자들은 이주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주

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주의 목적에 따라 각각 이주의 용이성 및 한국에서의 취업환경, 목적의 성취가능성(즉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크게 이주의 용이성, 취업환경, 목적 성취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관련 문항을 설정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이주의 용이성에 대해서 결혼이주자는 타 국가보다 국제결혼이 쉬운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는 타 국가에 비해 입국과정이 쉬운지, 취업비용은 저렴한지 등에 관한 문항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결혼이주자들은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해 타 국가보다 수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값이 2.8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34.1%에 달하고 있어, 결혼이주자들이 인식하는 한국으로의 이주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표 8). 특히 출신국적별로 중국인들이 5점 척도 2.60을 보이고 있어 가장 이주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고, 반면 캄보디아 여성들은 3.18로 나타나 결혼이주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주의 용이성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이주의 용이성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유형	설문문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결혼 이주자	타 국가보다 국제결혼 쉬움	370 (100)	34 (9.2)	92 (24.9)	152 (41.1)	77 (20.8)	15 (4.1)	2.86
이주 노동자	입국과정 쉬움	339 (100)	34 (10.0)	60 (17.7)	118 (34.8)	99 (29.2)	28 (8.3)	3.08
	취업비용 저렴	339 (100)	22 (6.5)	51 (15.0)	136 (40.1)	103 (30.4)	27 (8.0)	3.1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의 용이성에 대해 결혼이주자 보다는 약간 높게 3.08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주의 용이성은 한국으로의 이주에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비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이기는 하나 3.18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심층면담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취업비용은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의 비용보다 기대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례 1]** 스물세 살에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후 생활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의 원양어선을 탔지만, 여전히 힘들고 부족해, 가정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 몰래 2000년도 5월에 한국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 빚을 내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밀입국을 통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다. 이를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 것인가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 길림성 출신 재중동포, 남, 2000년 이주, 대구 거주).

결국 이주자들은 단순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용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적

동기들이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이주과정이나 이주 후 정착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취업을 전제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 그리고 학업 후 취업활동을 하게 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취업환경에 대해 얼마만큼 고려하였는지 살펴보았다(표 9). 우선 이주노동자는 이주의 주 목적과 관련된 취업환경에 대해 고려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값으로, 한국의 일자리가 풍부한지에 대해서는 3.59, 다른 국가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3.57로 나타나어,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 및 임금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직 이주자 역시 취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환경에 대한 고려 정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우가 좋고 근무환경이 쾌적한가'에 대해 5점 척도 값이 3.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 관해서도 3.61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으로의 이주가 유학 후 취업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3.73의 다소 높은 고려를 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교육을 향후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항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표 9. 유형별 취업환경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유형	설문문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이주 노동자	일자리 풍부	341 (100)	8 (2.3)	32 (9.4)	107 (31.4)	139 (40.8)	55 (16.1)	3.59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	341 (100)	4 (1.2)	21 (6.2)	137 (40.2)	133 (39.0)	46 (13.5)	3.57
전문직 이주자	대우가 좋고, 근무환경 쾌적	255 (100)	5 (2.0)	13 (5.1)	66 (25.9)	118 (46.3)	53 (20.8)	3.79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256 (100)	4 (1.6)	29 (11.3)	73 (28.5)	107 (41.8)	43 (16.8)	3.61
외국인 유학생	유학 후 취업에 유리	358 (100)	4 (1.1)	26 (7.3)	92 (25.7)	176 (49.2)	60 (16.8)	3.73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학업 후 이들의 취업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학생의 유치는 물론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자의 유형별로 이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개인의 목적 성취가능성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결혼 및 임금 그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고, 전문직 이주자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를, 외국인 유학생

에게는 학문적 욕구 충족 및 사회적 신분상승, 유학 후 능력의 향상 정도를 질문하였다.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으로의 이주결정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대해 5점 척도 결과 3.68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스코트(Scott, 2006)가 제시한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 동기 중 경력 경로(career path)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요소를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다른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이주에서 고려하는 목적 성취가능성에 관한 주요 요소로서 ‘유

표 10. 목적 성취 가능성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유형	설문문항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척도
전문직 이주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보장	256 (100)	3 (1.2)	26 (10.2)	60 (23.4)	127 (49.6)	40 (15.6)	3.68
외국인 유학생	학문적 욕구 충족	356 (100)	4 (1.1)	10 (2.8)	104 (29.2)	174 (48.9)	64 (18.0)	3.80
	사회적 신분상승	358 (100)	11 (3.1)	46 (12.8)	130 (36.3)	135 (37.7)	36 (10.1)	3.39
	유학 후 능력 향상	356 (100)	3 (0.8)	13 (3.7)	63 (17.7)	193 (54.2)	84 (23.6)	3.9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학 후 능력 향상'에 대해 5점 척도 값 3.96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욕구 충족'에 대해서도 3.80의 높은 척도 값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육이 이주의 주 목적인 만큼 목적 성취가능성 요소를 크게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인 신분상승에 대한 고려는 3.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6.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기회

개인적 측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라는 큰 결정은 반드시 자발적인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주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의 해외 방문 경험이나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주자는 이주를 결정하기에 앞서 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문제점들을 인식하고<sup>8)</sup>, 가족이나 친구를 국제 이주의 사회적 연결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주자와 주변사람과의 사회적 연결망이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이주의 전통과 가치관이 심어져 연쇄이주(chain migration)가 지속되기도 한다.<sup>9)</sup> 이와 같은 타인의 영향과 다른 국가에 대한 경험과 연계는 한국으로의 이주에 간섭기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간섭기회 1: 이주에 영향을 미친 사람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 전 삶의 여건과 목적국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인식이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관련 직장이나 기관의 관계자 등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제이주를 함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이주가 어느 정도

자발적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자의 60.2%, 이주노동자의 45.5%, 전문직 이주자 49.6%, 외국인 유학생 54.7%가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발적인 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1).

그러나 혼자서 결정했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이주자의 유형별 또는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결혼이주자는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이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편중되어 있는데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는 결혼중개업체(18.8%)의 영향을, 광주의 결혼이주자는 부모님이나 친척(25.0%) 또는 결혼 중개업체(17.3%)의 영향을, 전남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는 부모님이나 친척(25.0%)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는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에 비해 자발적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비중(45.5%)이 가장 낮으며, 이주를 결정하는데 부모님이나 친척(22.9%), 친구(16.1%) 또는 해외인력 송출 관계자(10.8%)의 영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거주 지역별로 이주 결정에 부모님이나 친척의 영향이 컸던 이주노동자는 광주(47.6%)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서울(41.9%)과 경기(24.6%)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인다. 또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주노동자는 광주(23.8%)와 경북(22.6%)에서 높게 나타나며, 경북과 경기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해외인력 송출 관계자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각각 22.6%, 15.8%).

전문직 이주자 역시 이주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49.6%), 이 외에 친구의 영향(15.6%)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 도시나 지역, 예로 전남(25.0%)과 대구(23.9%), 경북(21.7%)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가 더욱 그러하다. 한편 한국이나 본국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이주 결정에 미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상층회로에서 이주의 전형으로 생각했던 조직 내 파견근무자(intra-

표 11. 이주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단위: 명, %)

	합계	혼자 결정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동료		종교단체	결혼 중개업체	
결혼이주자 구성비(%)	367 (100.0)	221 (60.2)	56 (15.3)	33 (9.0)		26 (7.1)	31 (8.4)	
	합계	혼자 결정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상사 나 동료	해외인력 송출 관계자		
이주노동자 구성비(%)	323 (100.0)	147 (45.5)	74 (22.9)	52 (16.1)	15 (4.6)	35 10.8		
	합계	혼자 결정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상사 나 동료	한국기업 및 기관 관계자	본국기업 및 기관 관계자	기타
전문직종사자 구성비(%)	256 (100.0)	127 (49.6)	29 (11.3)	40 (15.6)	9 (3.5)	17 (6.6)	22 (8.6)	12 (4.7)
	합계	혼자 결정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주변사람		학교나 교수 권유		기타
외국인유학생 구성비(%)	358 (100.0)	196 (54.7)	75 (20.9)	30 (8.4)		37 (10.3)		20 (5.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company transferee)나 이주의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조직 간(inter-company) 이직의 형태는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러한 경향은 앞서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 전 직업 중 경영·회계직이나 전문직의 비율이 낮았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결정과정에서는 혼자 결정(54.7%)했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부모의 권유(20.9%)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전남(32.8%)과 경북(30.4%) 지방 대학의 유학생에게 부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평균 연령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가 이주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교나 교수의 영향이 저조한 것은 발전적인 학교 간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학교나 교수의 권유(18.2%)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대학교육의 계층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최근 국가 및 지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일례로 해외 현

지 홍보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 설문조사 결과 그 영향력을 전적으로 파악할 순 없어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발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에 따라 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각 개인이 처해있는 여건과 구조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와 동시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의 과정을 단순히 구조적 과정이나, 미시적 과정이나의 흑백논리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 2) 간섭기회 2: 해외 경험과 해외 이주가족과의 연계

국내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다른 국가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는 국

표 12. 다른 나라 방문 경험 및 목적

(단위: 명, %)

유형	합계	방문경험 있음	다른 나라 방문 목적*					
			소계	취업	유학	여행	가족방문	기타
전체	1,353 (100)	417 (30.8)	367 (100.0)	121 (33.0)	58 (15.8)	136 (37.1)	24 (6.5)	28 (7.6)
결혼이주자	393 (100)	61 (15.5)	51 (100.0)	18 (35.3)	1 (2.0)	19 (37.3)	9 (17.6)	4 (7.8)
이주노동자	346 (100)	99 (28.6)	82 (100.0)	49 (59.8)	8 (9.8)	8 (9.8)	8 (9.8)	9 (11.0)
전문직이주자	256 (100)	162 (63.3)	144 (100.0)	51 (35.4)	30 (20.8)	49 (34.0)	3 (2.1)	11 (7.6)
외국인유학생	358 (100)	95 (26.5)	90 (100.0)	3 (3.3)	19 (21.1)	60 (66.7)	4 (4.4)	4 (4.4)

주: \* 무응답자 제외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제이주를 위한 정보의 획득과 해석능력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초국적 이주를 시행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족 가운데 해외 거주자가 있는가의 여부는 국제이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특히 목적국에 거주할 경우 이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해당 국가에 이주 및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주자의 주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의 타 국가 방문 경험과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11).

첫째, 본인의 타 국가 방문 경험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가 162명(63.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주노동자 99명(28.6%), 외국인 유학생 95명(26.5%), 결혼이주자 61명(1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동하는데는 개인의 여건으로 인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며, 성, 소득, 연령, 직업 등에 따른 제약의 차이가 그것이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즉 이동성에 차이가 나기 쉬우며(허우궁, 2006, 102), 전문직 이주자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로 인해 이동의 제약을 가지며,

이는 ‘공간의 텃에 갇힌 여성’이라는 명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정현주, 2007). 따라서 여성화되어 있는 국내의 결혼이주자들도 타 국가로의 방문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지리적인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다른 나라의 방문에 대한 경험을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그 목적을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이주자의 대부분은 방문 목적으로 여행(37.1%)이나 취업(33.0%)을 손꼽았다. 유형별로 결혼이주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전반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여행(각각 37.3%, 34.0%)과 취업(각각 35.3%, 35.4%) 목적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화되어 있는 결혼이주자의 타 국가 방문 목적이 취업과 여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국내로 유입한 결혼이주자들은 다른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국가로의 방문 목적이 뚜렷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약 60% 가량이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어 ‘생존 회로’에서 이동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이

표 13. 해외거주 가족의 유무

(단위: 명, %)

유형	국적	합계(명)	있다	어머니	아버지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기타
결혼 이주자	전체	376	21,0	3,2	1,6	3,5	8,5	4,3
	중국	139	20,9	4,3	2,2	1,4	6,5	6,5
	베트남	125	11,2	0,0	0,0	2,4	8,0	0,8
	필리핀	54	37,0	11,1	3,7	3,7	13,0	5,6
	캄보디아	17	29,4	0,0	0,0	5,9	11,8	11,8
	일본	16	6,2	0,0	0,0	0,0	6,3	0,0
	기타	25	40,0	0,0	4,0	20,0	12,0	4,0
	외국인 유학생	전체	352	22,6	0,6	1,7	7,1	5,7
중국	205	22,0	0,5	2,0	3,9	5,4	10,2	
일본	31	6,5	0,0	3,2	0,0	0,0	3,2	
인도	23	26,1	4,3	0,0	17,4	4,3	0,0	
필리핀	15	20,0	0,0	6,7	6,7	6,7	0,0	
미국	9	11,1	0,0	0,0	11,1	0,0	0,0	
기타	69	27,5	0,0	0,0	15,9	10,1	1,4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주노동자들은 경제적 빈곤이라는 외부적 조건과 개인의 주체성이 결합되어 국제 이주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외국인 유학생의 타국가 방문 목적은 여행이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약 86%가 30세 미만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은 이주노동자와 대조적으로 여행의 경험을 가질 만큼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풍족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12)</sup>

둘째, 가족 중 본인 외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적으로 이주에 대한 접근기회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또는 위기 분산 전략으로 타국가로 이주를 선택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일부)의 해외 이주 여부를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면(표 13), 결혼이주자는 해외로 이주 경험이 있는 본국 가족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없다'(79.0%)는 응답이었지만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자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자 형제들의 해외 이주경험이 10%이상 나타나고 있다(각각 13.0%, 11.8%). 외국인 유학생도 비슷하게 가족 중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

다'고 응답하였으며(77.1%), 인도와 미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남자 형제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각각 17.4%, 11.1%). 즉,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모두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이 주로 형제로 나타나 젊은층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결혼이주자는 여자형제, 외국인 유학생은 남자형제 위주로 나타나 성별로 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국가들에 관한 경험이나 다른 국가들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여부는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을 고려하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국가들로의 이주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해외로 이주한 가족의 이주 목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결혼이주자 가족의 해외 이주 목적은 국제결혼이 39.7%, 취업이 32.9%로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외국인 유학생 가족은 유학이 48.0%로 이주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이들 가족 중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모두 개인이 처한 환경 하에서 세계적인 이주 대열에 합류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분절화 된 영역에 편입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7. 결론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은 초국적 이주를 직접 조건지우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미시적 요인들에 관한 분석은 이주의 거시적 배경에 관한 연구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동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주 전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의 직업 및 가정의 경제수준과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들 가운데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좀 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주의 용이성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입국의 용이성과 더불어 취업비용의 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이주의 비용보다 기대소

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들이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45~60%정도에 달하여, 가족이나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주

- 1)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이주 및 정착 과정에 관한 일련의 설문조사 연구에서 미시적 배경과 인식 단계에 관한 것으로, 이주의 거시적 배경, 이주과정 자체, 기본 생활공간에서의 의식과 활동, 일상생활에서의 공간적 활동, 지역사회 의식과 정체성,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한 별도의 논문이나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2)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후 현재 연평균 소득은 응답자 110명 중 1,000만 원 미만인 4명(3.6%), 1,000~3,000만 원 63명(57.3%), 3,000~5,000만 원 36명(32.7%), 5,000~7,000만 원 1명(0.9%), 7,000~1억 원 1명(0.9%), 1억 원 이상 1명(0.9%), 무응답 4명(3.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국에서의 연평균 소득보다 한국으로 이주 후 임금수준이 다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취업이주자이기 때문에 본 설문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은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경제적 자립도가 높으므로 부모님의 교육 수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
- 4)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2008년 4월 1일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63,952명 중 중국 출신 유학생이 44,746명(70.0%)으로 압도적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 3,324명(5.2%),

- 몽골 2,022명(3.2%), 베트남 1,817명(2.8%), 미국 1,481명(2.3%)의 순이다.
- 5) 한국이주에 관한 정보획득 방법에 관한 설문에서도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자들은 중개업체(27.6%) 다음으로 TV 및 신문광고(25.0%), 기타(19.8%),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14.7%), 가족 및 친척(11.2%), 사회 및 종교단체(1.7%) 순으로 나타나 정보획득에서 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 6)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4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63,952명 중 대학(전문대학)이 44.1%, 어학연수 30.5%, 석사과정 14.3%, 기타연수 6.0%, 박사과정 5.1%의 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수를 제외한 학업 과정에서 대학원에 비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유학생의 비중이 크게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7) 스코트(Scott, 2006)는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크게 경력 경로(career path), 선호 생활양식(lifestyle preference), 관계(relationship)로 구분한 바 있다.
  - 8) 이주노동자는 '상층회로(upper circuit)'에서 이동하는 전문직 이주자와는 대조적으로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생존회로(survival circuit)'에서 이동하고 있으며, 송출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는다.
  - 9) 박경태(2001)는 국제 노동력 이동을 설명하는데 개인과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연결하는 고리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때의 연결고리를 가족과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족과 공동체가 이주 노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편적 규범 및 정보의 제공, 필요 자원의 조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 10) 기존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이동하는 조직 내 파견근무가 상층회로에서의 이주의 전형으로 생각되었지만(Beaverstock and Boardwell, 2000; Sklair, 2002), Findlay(1998)는 이 밖에 헤드헌터나 기업에 의한 직접 고용 등에 따른 방식 등으로 이주의 채널(channel)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한주희(2007)는 예전의 다국적 기업의 조직 내 파견에 의한 이주가 개인보다는 조직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조직 간 이직은 조직보다는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보았다.
  - 11)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09.6.30 기준)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자(체류자격 F-1-3와 F-2-1) 126,155명 중 110,832명(87.9%)이 여성으로 결혼이주의 여성화 현상

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12) 본 설문조사에서 다른 국가의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의 연령 분포는 21세 이하 5명, 22-24세 34명, 25-26세 17명, 27-29세 26명, 30세 이상은 13명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08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이상) 통계.
- 김동수 · 정태연 · 박준성 · 김현정, 2008,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의 결혼의 동기와 결혼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78-179.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59-193.
- 김보영 역, 2004, 국제 이주, 서울: 이소출판사 (=Stalker, P., 2002, *The No-Nonsense Guide to International Migration*, Oxford: new Internationalist Publications Ltd.).
- 김희재, 2002, "노동이동과 외국인노동자정책," 사회조사연구 17, pp.23-47.
- 박경태, 2001,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의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13, pp.26-48.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 박은경,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미래인력연구원.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pp.5-37.
- 석현호 · 이해경, 2003,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이주과정," 석현호 · 정기선 · 이정환 · 이해경 · 강수돌 (저),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pp.69-95.
- 양소예, 2007, "외국인 프로 농구 선수의 한국 프로 리그로

- 의 노동 이주 특성과 적응 경험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3), pp.537-554.
- 장미진 · 김규원 · 설동훈 · 송윤창 · 이지연, 2002, 외국인에 의한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과제 2002-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pp.259-284.
- 정현주, 2007, “공간의 틈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53-68.
- 정현주 역, 2002, 지구체계의 사회학, 서울: 일신사 (=Sklair, L., 1995, *Sociology of the Global System*, Harvester Wheatsheaf: Prentice Hall).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pp.109-122.
- 최진희, 2006, 주한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에 대한 연구: 국내 거주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6월 통계월보.
- 한주희, 2007, 고숙련 전문직 이주자들이 갖는 커리어의 사회적 경로: 한국 금융서비스산업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우궁, 2006, “도시와 교통,” 김인 · 박수진(편),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pp.95-109.
- Beaverstock, J. V. and Boardwell, J. T., 2000, “Negotiating globaliza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ity financial centres in transient migration studies.” *Applied Geography* 20, pp.277-304.
- Carr, S. C., Inkson, K. and Thorn, K., 2005, “From global careers to talent flow: Reinterpreting ‘brain drain’,” *Journal of World Business* 40, pp.386-398.
- Constable, N.,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Findlay, A., 1998, “A migration channels approach to the study of professionals moving to and from Hong Ko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3), pp.682-703.
- Hall, C., 1986, *National images: A conceptual assessment*, paper presented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Lauby, J., and Stark, O., 1988, “Individual migration as a family strategy: Young women in the Philippines,” *Population Studies* 42, pp.473-486.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31-466.
- Scott, S., 2006, “The Social morphology of skilled migration: The case of the British middle class in Pari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7), pp.1105-1129.
- Taylor, J. E., 1986, Differential migration, networks information, and risk, in Stark, O.(ed.), *Research in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Greenwich, Conn.: JAI Press, pp.147-171.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이메일: bdchoi@daegu.ac.kr
-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Naeri-ri, Jilyang-up, Gyeongsan-si, Gyeongbuk, 712-714, Korea, Tel: 053-850-4155, Fax: 053-850-4151, E-mail: bdchoi@daegu.ac.kr

최초투고일 2009년 12월 14일  
최종접수일 2009년 12월 21일

## **Immigrants' Mi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Byung-Doo Choi\* · Ju-Youn Song\*\*

**Abstract** : This paper explores mi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foreign migrants in Korea with four types, that is, married immigrants, immigrant workers, professional im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analyzing dates of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Som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rried immigrants and immigrant workers show relative lower level of micro-environments than professional im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Secondly, immigrants workers fill closest in geographical contiguity among immigrants' types, while married immigrants recognize more different in cultural comparison than the former. Both immigrants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think living environments of Korea better than other types, but immigrants workers consider relatively higher the level of technology, while foreign students evaluate lower that of education in Korea than other types. Thirdly, married immigrants give a relatively low score to the easiness of immigration, while both immigrant workers and professional immigrants give a high score to the job environment of Korea. Finally, all types of immigrants show a high portion in a self-decision making for international migration, while professional immigrants have much more experiences on visiting other countries than other types, and both married im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seem to have utilized their networks with family members who live abroad.

**Keywords** : transnational migrants, micro-contex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

\*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 Ph.D. Candidate of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urbangeo@daegu.ac.kr